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1일 화요일 음 7월 20일 (12월)

기상정보

흐림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5~26℃, 낮 최고기온은 31~32℃로 예상된다. 당분간 무더위·열대야에 주의해야겠다.

|     |       |     |
|-----|-------|-----|
| 오전  | 강수 확률 | 오후  |
| 20% | 제 주   | 30% |
| 20% | 성 산   | 30% |
| 20% | 고 산   | 30% |
| 20% | 서귀포   | 30% |

|                       |                       |
|-----------------------|-----------------------|
| 해돋이 06:07<br>해질 19:00 | 달돋이 21:00<br>달짐 10:01 |
| 물때 만조 00:33<br>13:04  | 간조 07:17<br>19:38     |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25/32℃

모레 흐리고 비 25/31℃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 대홍수 사망자 768명... 실종자도 3000명대

네팔·中, 구조 '사력'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 발생 닷새째인 30일(현지시간) 양국 당국이 3000명이 넘는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네팔 재난관리청 등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네팔과 중국에서 최소 768명이 숨지고 3048명이 실종됐다. 네팔에서는 수력발전소 11곳 이상에서 최소 933명의 작업자가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100여명이 터널 안에 고립된 채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팔군 구조대는 트리술리 3A 수력발전소 터널 상부에 진입로를 뚫고 파이프를 통해 공기를 주입하는 한편 카메라를 투입했다. 폭우로 작업이 일시 중단됐으나 이후



터널 내 진흙탕 속 생존자 구조. 연합뉴스

장비를 동원해 구조를 재개했다. 네팔 당국은 피해지역에 군·경찰 등 1만5000여명을 투입했으며, 인도와 중국도 터널 전문 구조팀을 파견했다. 다만 강 수위 상승과 자연땀 붓고 우려로 2차 피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네팔 정부는 복구비로 약 40억~5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과 캐나다, EU, 영국 등도 긴급 구조 지원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살충제 훈제 전하 주입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그랜드보청기

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씨니트 -한라봉 2년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니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상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전,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귤묘목·포드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히라베니와세

● 금굴 ● 하굴(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옥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나로 ● 제라몬

※ 포드묘목

생존율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굴

/ 오히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 (가립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 데스크칼럼

고대로  
편집국장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도를 넘고 있다.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을 넘어 제주가 마치 범죄가 횡행하는 위험 지역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2024년 제주관광 이미지를 훼손했던 이른바 ‘비계 삼겹살’ 논란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장이 거세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경찰 대응에 대한 검증은 당연하다.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일부 방송과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

## 공포와 혐오 키우는 ‘제주 때리기’ 중단해야

지는 일은 합리적인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일부 유튜브와 온라인 콘텐츠에서는 제주 지역 실종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숫자와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마치 제주에서 매년 1000여 명이 사라지고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공포심을 자극한다. ‘죽어도 서울에서 죽어야 한다’, ‘서울에서는 범인을 잡지만 제주에서는 수사 역량이 떨어져 범인을 잡지 못한다’는 식의 주장까지 떠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과 제주를 위협한 섬으로 낙인찍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건이 정치적·혐오적 소재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문제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객관적인 근거 없

이 특정 국적이나 집단을 범죄와 연결한다면 외국인 혐오와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제주 지역 치안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반대로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제주는 위험하다’는 주장의 상당 부분은 근거를 잃게 된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타살을 전제로 범인을 상상하고 제주 전체의 치안 수준까지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제주 경찰도 이번 사건을 담당 경찰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실종 사건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면 철저히 책임을 묻고 대응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제주도 역시 사실과 다른 정보가 확산한다면 정확한 통계를 제시해 바로잡아야 한

다. 실종 신고 건수와 미발견 인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제주는 세계적인 관광지다. 이미지와 신뢰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렇다고 사건을 덮거나 잘못을 감추자는 얘기가 아니다. 사건은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된 바로잡아야 한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제주 전체를 ‘범죄의 섬’으로 몰아가는 행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은 조화수를 위한 콘텐츠도, 지역과 국적을 공격하는 정치적 도구도 아니다. 경찰의 잘못된 철저히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책임을 제주 전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와 혐오를 키우는 ‘제주 때리기’가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냉정한 판단이다.

## 열린마당

### 미수금 회수 성패, 골든타임·체계적 압류로

최경봉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장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에 처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채권 추심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체계적인 채권 회수는 사전 조사에서 시작된다.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부동산, 예금 현황 등을 파악하는 ‘신용조사 및 재산탐색’이 필요하다.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해 임의 변제를 독촉하고,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은행 계좌와 부동산, 유체동

### 확인·양보, 성공적인 장애인체전을 만드는 힘

윤성미  
제주도 교통항공정책과 지방행정7급

오는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제주에서 처음으로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된다.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31개 종목에서 한계를 넘어 도전하는 이번 대회는 장애인들에게 제주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다. 선수단과 가족, 관계자들의 방문은 숙박·음식·교통 등 지역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섬이라는 특성상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선수단의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수송이 중요하다. 선수단의 제주 입도는 9월 8일부터 12일

까지, 출도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집중될 전망이다.

휠체어 이용 선수와 관계자는 항공권 예약 시 휠체어 사용 여부와 필요한 이동 지원을 항공사에 미리 알려야 한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대형기 최대 6대, 그 외 항공기는 최대 2대까지만 수용할 수 있어 사전 안내가 없으면 운송이 제한될 수 있다. 이미 항공권을 예약했더라도 탑승 전까지 전동휠체어의 크기·무게, 배터리 종류·용량, 분리 가능 여부 등을 항공사에 확인해야 한다.

도민과 일반 이용객도 선수단 이동 집중기간에는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고 운항정보와 탑승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휠체어 이용 선수의 승하차와 보조기기 적재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따뜻한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다.

제주를 찾은 선수단이 불편 없이 환대를 경험할 때 제주를 누구에게나 열린 ‘장애인 친화 관광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